2015. 02. 11

Market behavior 엿보기

E*TRADE EDGE

소(중)형주가 주도하는 시장

Investment Edge

KOSPI가 횡보하다 보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/종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. 일부 성장주가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아직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정도의 여력은 안 된다. 그래도 작지만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스타일이 소(중)형주다. KOSDAQ 시장에도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, KOSDAQ 시장에 대한 인식은 소(중)형주 스타일이다.

소(중)형주가 주도하는 흐름은 매크로 환경 그리고 소형주 자체의 펀더멘탈이 같이 작용하면서 나타난 측면이 크다. 소(중)형주 강세요인을 짚어보면, ① 저금리 환경이 소형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. 일반적으로 소형주는 이자보상배율이 낮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이자부담이 경감된다. ② 소형주는 가치의 영역에 있다. 아직 시가총액이 자본총계보다 작다. 또한 펀더멘탈 비중(매출, 자본총계, 영업이익 기준)도 시가총액 보다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. ③ 수익률 스프레드로 보면 최근 3개월간 대형주와의 수익률 차이가 과도하게 확대된 수준은 아니다. 소형주가 우위를 보이는 국면이다.

한편으로 한국 시장 대형주를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의 하나인 환율이 우호적이지 않다. 달러화 강세 속에서 각국은 통화가치 절하를 추진하고 있다. 시장(대형주)에 불리한 요인이다. 소(중)형주가 당분간 시장의 주도 스타일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.

수익률 스프레드: 소형주와 대형주가 차이가 아직 과도하지 않다

자료: Quantiwise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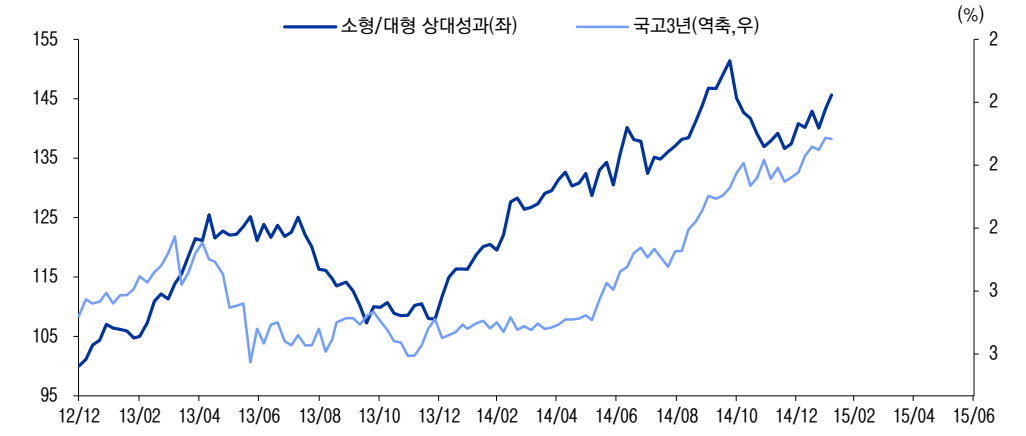
퀀트/투자전략

양해정

02. 3779-015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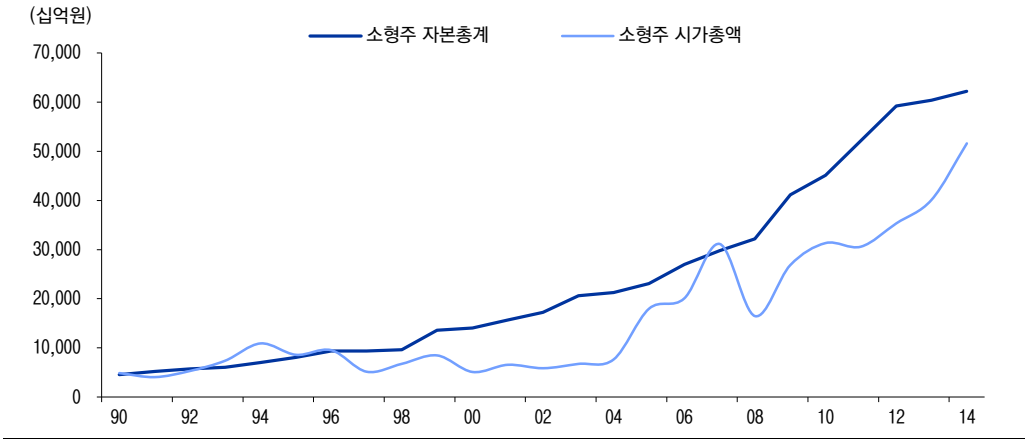
hjyang@etrade.co.kr

그림1 금리와 역의 관계를 보이는 소형주 상대성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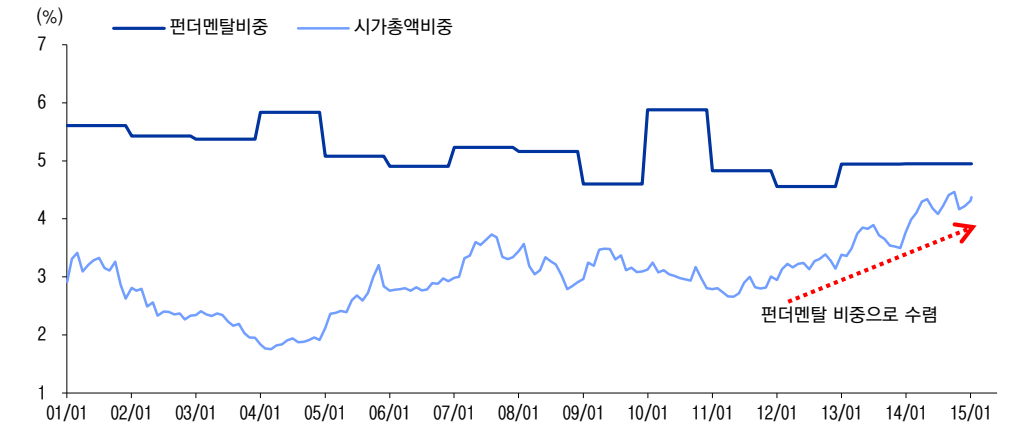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Quantiwise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 가치의 영역에 있는 소형주



자료: Quantiwise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3 가치의 영역에 있는 소형주



자료: Quantiwise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양해정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